

에텐(그림전) 및 샤리텐(사리전)(가마쿠라 시대 중요문화재)

샤리텐(사리전)과 에텐(그림전)은 원래 쇼토쿠 태자(574~622 년)와 관련된 물건들을 수장하는 창고였지만, 헤이안 시대(794~1185 년)에 서쪽은 쇼토쿠 태자의 생애를 묘사한 장벽화가 늘어선 에텐으로, 동쪽은 샤리텐으로 개축되었습니다. 현재의 샤리텐은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 년)에 지어진 것으로 석가모니의 유골(사리)을 수장하고 있습니다. 샤리텐에 모셔진 사리는 쇼토쿠 태자가 불과 두 살 때 합장을 하자, 그 손바닥 안에서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.

과거 에텐 에 장식되어 있었던 쇼토쿠 태자의 생애를 묘사한 장벽화는 현재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.